



원양폭포의 차가운 유혹 13일 서귀포시 돈내코 원양폭포를 찾은 시민들이 얼음장 같은 계곡물에서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상국기자

“지속 가능 통합형 물관리 체계 구축”

도, 어제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공개
낮은 유수율·농업용수 공급 체계 등 현안 제시

제주 지하수 등 물 관리 일원화 방안을 담은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의 밑그림이 나왔다. 계획에는 농업용수와 상수도를 포함한 물 관리 체계 일원화 방안, 정책 수립 컨트롤타워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주요 내용을 13일 공개했다.

연구는 제주연구원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행했다. 투입된 예산만 19억 원이며, 과업 기간은 2020년부터 올해 12월까지다.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은 제주 수자원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도내 물관리 정책의 기본 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연구진은 도내 물 관리 관련 현안으로 상수도의 경우 낮은 유수율, 농업용수의 경우 공급 체계 문제와 함께 가뭄 시 비상용수 확보 방안을 시급한 문제로 지적했다. 물 관리 정책을 수립할 컨트롤 타워 및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도 제안했다.

연구진은 계획의 목표를 ‘지속가능한 통합형 물관리 체계 구축’으로 설정하고 5대 핵심전략과 22개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5대 핵심 전략은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 ▷정정한 물환경 보전·관리 강화 ▷기후위기 대비 물안전 확보 ▷새로운 물가치 창출·확산 ▷제주형 수자원 조사·연구체계 구축 등이다.

우선 유수를 제고를 위해 물 공급·이용체계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물 이용체계의 경우 취수허가량 관리 현실화와 장기 미사용 관정 허가 취소 등의 제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친환경 대체수자원 활용 비율을 현재 3.5%에서 20%까지 늘린다는 과제도 제안됐다. 이를 위해 하수 재이용수 수요처를 확대하고, 웅천수를 활용한 중규모 저류조 신설 및 중·대규모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염지하수 담수화 사업 추진도 담겼다.

특히 상수도와 농업용수의 ‘용도별 연계 공급체계 구축’, 즉 일원화 계획이 세부 과제로 제시됐다. 이 계획은 상수도와 농업용수의 집중 이용 시기를 각각 고려해 가뭄 등 비상 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상수도 정수장 취수원과 농업용수 광역 저수조를 연계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물 관련 정보 수집·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주민 참여형 물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통합 물관리 컨트롤타워’ 조직 설치 등 조직 개선 방안도 제안됐다.

물환경 보전·관리 강화를 위한 과제로는 오염물질 배출원 통합 관리 방안이 계획됐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지역관리제를 도입하고, 가족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하수 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과제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오염 취약지역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수질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오는 21일 계획 관련 도민 공청회를 개최한 뒤 오는 9월 2차 공청회를 연다. 이후 전문가와 도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12월 용역을 완료,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강대희기자 dhkang@ihalla.com

제주연안 고수온 주의보... 양식장 ‘비상’

“서부지역 수온 편차 주의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제주연안에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졌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온을 관측한 결과 이날 오전 10시 기준 도내 양식장 사육수온은 최고 수온 28.5℃로 관측됐으며, 하루 중 약 6℃의 최고 수온 편차가 발생하고, 제주연안 표층 수온은 최고 28.2℃로 관측됐다.

서부지역 등 지하 해수가 없는 양식장의 경우 여름철 수온 상승과

더불어 저층 냉수대의 영향으로 하루 중 수온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사례가 있어 양식어류 등의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는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8일부터 고수온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마련한 도내 양식장 액화산소 공급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또 도내 연안 수온 및 양식장 수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측 결과를 매일 양식장에 제공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공모... 8월 첫 회의
연구용역 과업 지시서 검토 후 과제 등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공모에 들어갔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약칭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분야별 전문가를 공개 모

집한다. 위원회는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게 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8월 중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해 15명 이내로, 제주도의회 추천 4명, 행정시 추천 각 1명, 도청 공무원 2명, 지방자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 등 7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향후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분야·지역·학계·법조계·기관·단체별로 균형 있게 선정할 예정이다.

행개위는 8월 초 첫 회의를 시작으로 3~4회 회의를 개최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연구용역 과업 지시서 검토 작업을 진행한 후 용역 과제 내용을 최종 확정한다.

제주도는 이후 연구용역 수행업체를 선정해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3년 12월쯤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

체 신설을 위해서는 현행 행정구역 조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해 도민 공감대 형성 방안과 중앙정부 설득을 위한 방안도 용역에 담는다.

제주도는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 조사와 도민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2024년 하반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안 주민 투표를 실시하고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 6월까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대로그 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 코로나19 신규 635
잠정 집계 13일 누계 24만4677
(17시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정부 지원사업 잔여예산 신청자 모집

신청 자격 **제주시 노형동, 연동, 해안동 소재 상업용 건물 소유자**

호텔, 사우나, 공장, 병원, 마트, 창고, 냉장/냉동시설, 식당, 학원, 종교시설 등 전기다소비 시설 우대

태양광 발전

설치비용 75% 무상지원

- 고효율 최신 기자재 설치
- 전기요금 절감효과 탁월
- 경제수명 30년 성능보증

설치사례 : 서울사우나 태양광99kW

연료전지

설치비용 95% 무상지원

대상 : 도시가스 사용건물

- 전기 생산 및 온수생산
- 전기요금 및 급탕 연료비 절감
- 제주국제공항, 드림타워 운영중

모집기간 : **예산 소진시 까지**

정부 지원사업 상담/접수 **제주슬라에너지(주)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기업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정부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